

간경변과 합병증

간 경변증은 간의 염증이 오래 지속된 결과 간의 표면이 우물두들해지는 것을 말한다. 간경변증 환자의 진찰 소견은 다양하다. 즉 외관상 정상인과 별 차이 없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색이 완연하고 수척하며 복수가 차 있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간경변증은 임상적으로 범위가 매우 넓다. 간경변증은 있으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괜찮은 전자(前者)와 같은 상태를 대상성(代償性) 간경변증이라 하고, 각종 합병증을 동반하는 후자(後者)와 같은 진행된 상태의 간경변증을 비대상성(非代償性) 간경변증이라고 한다.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의 경우 만성간염 상태에서 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이행하는율이 5년 동안에 12~20퍼센트, 대상성 간경변증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이행하는 율이 20~23퍼센트라 하니, 간경변증이라도 대상성과 비대상성은 임상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반적인 간기능이 괜찮은 대상성 간경변증이라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병의 관리를 잘 해서 간기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간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힘써야 한다. 만일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면 간경변증의 각종 합병증이 나타나기 쉽고, 이러한 합병증 자체로 앓아 눕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간염이나 대상성 간경변증 상태에서 환자가

가 잘 못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합병증을 동반하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환자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다.

간경변증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검사는 복강경(腹腔鏡)검사나 간 조직검사다. 복강경검사는 배에 조금 구멍을 내고 내시경을 넣어서 간을 직접 관찰하는 검사로서 간의 표면에 우물두들한 경변의 소견이 보이면 그 자체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는 조직검사에서 간 섬유화 등의 소견이 관찰되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검사들은 환자에게 다소 부담스럽고, 대개 진찰 소견 및 혈액검사, 초음파나 CT 소견 등을 종합하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간경변증의 경우 ALT치, 즉 간염 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대개 정상이거나 정상의 2배 이내인 경우가 많다.

복강경으로 본 간경변의 소견

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는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그런대로 충분하기 때문에 알부민, 빌리루빈 등은 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알부민이 감소하거나 빌리루빈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일 수 있다. 즉 간경변증 또는 진행된 상태의 만성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어느 정도나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며, 알부민이나 빌리루빈은 이를 대략적으로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이다. 또한 간세포에서는 혈액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충분치 않으면 이것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혈액응고가 지연될 수 있다.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또는 PT)이라는 검사는 혈액응고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검사이고 잔여 간기능을 평가하는 지표 중의 하나다. 간경변이 되면 비장이 커지고, 커진 비장 내에 혈소판이 많이 간혀 있어 일반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오게 된다. 원인 모르게 혈소판이 저하되어 있다면 간경변증의 기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만성간염에서와 같이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혈청학적 표지자 검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간경변증의 60퍼센트 가량이 B형 간염바이러스에서 기인하고, 20퍼센트 가량이 C형 간염바이러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B형이나 C형 간염바이러스 표지자가 양성이라면 만성 간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간경변증을 시사하는 다른 소견들이 있다면 임상적으로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붙이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간경변증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잔여(殘餘) 간기능의 저하다. 이는 기능을 하는 간세포가 적어진다는 뜻이다. 오래 지속된 염증의 결과 간세포들이 많이 죽고 간이 쪼그라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간세포 수가 적어지게 된다. 하지만 원래 간은 기능에 여유가 있고 재생 능력이 풍부하여 반 이상을 떼어내도 살아가는 데 별 문제를

가 없다 요즘 생체 부분 간이식이 라 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간 일부를 자식에게 제공하는 이식 수술이 종종 행해지는데, 이는 정상 간의 재생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경변이 온 간은 잔여 기능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 간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체의 종합화학단지같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기관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간암이 발생하여 수술로 떼어낼 때 암 주변의 정상 간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간의 손실이 간기능 부전(不全)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간암을 수술하기 전에는 잔여 간기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둘째는 문맥압(門脈壓) 항진의 문제이다.

간경변이 되면 간을 통해 혈액이 흐르는 데 대해 저항이 커진다 그 결과 간에 유입되는 문맥(門脈)이라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며 혈류가 간을 통과하기 힘들어서 다른 우회로(迂廻路)를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혈관들이 우회로로 이용되면서 굵어지게 되는데, 식도나 위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굵어진 혈관들을 정맥류라고 한다 정맥류는 가끔 압력을 못 이기고 파열되어 대출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된다 그리고 문맥압의 증가는 복수, 부종이나 비장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는 동반된 만성간염의 문제이다. 대개 간경변증이 되면 염증의 활성도는 줄어들고 섬유화나 결

절(結節) 형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간경변증 상태에서도 염증이 반복되면서 간세포의 파괴가 계속 진행된다. 이는 간기능의 손실 및 간경변의 진행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

넷째는 간암의 문제이다. 만성간질환 상태에서는 반복적으로 간세포의 괴사(壞死)가 일어나고, 간은 재생을 통해서 이를 복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상 간처럼 예쁘게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 섬유질이 침착되고 불규칙한 재생 결절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이 결절들 때문에 간의 표면은 울퉁불퉁해 보이게 되고 염증과 재생이 반복되는 상황은 간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인 것이다.

간경변증의 합병증

간경변증에서 보게 되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들은 진행된 간경변증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식도 정맥류(靜脈瘤)

식도나 위에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던 큰 정맥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고 가끔 여기서 대출혈을 할 수 있다. 식도, 위, 소장 등에서 출혈이 있게 되면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짜장과 같은 새까맣고 끈적거리는 대변을 보게 된다. 이것은 피가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까맣게 변색이 되기 때문인데 이를 흑색변이라고 한다. 혈변이나 흑색변은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다.

간성혼수(肝性昏睡)

단백질 대사의 결과 체내에서는 항상 유독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간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변환시켜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데, 간경변증으로 인해 간기능이 저하되면 암모

니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신경계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간성혼수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보통 만성간질환이 있으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넉넉한 식사를 권하는데, 간성혼수가 있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변비나 균의 감염, 위장관 출혈 등도 간성혼수를 조장하는 요인들이다

자발성(自發性) 복막염(腹膜炎)

정상 성인에서 저절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는 없다 워낙 장이 터져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외상을 입거나 췌장염이 심한 경우 복막염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선행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복막염을 이차성(二次性) 복막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간경변증으로 인해 복수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 원인들이 없이 저절로 세균성 복막염이 올 수 있다. 자발성 복막염은 사망율이 높은 무서운 합병증이다.

간신증후군(肝腎症候群)

진행된 간경변증 환자에게서는 신장 기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는 신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체내 수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의 저하가 오는 것이다 복수가 있으면 조절을 위해 이뇨제(利尿劑)를 쓰거나 복수를 직접 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의 균형이 흔들려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간신증후군이란 간경변증으로 인해 신장 기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상태에서 대개 어떤 치료를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32